

3/23(화) 롯기 묵상 10

롯기 4:9-12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롯의 기업을 무름으로서 둘은 정식 부부가 되었습니다. 보아스와 롯의 가정을 베들레헴 성문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기뻐하며 축복하게 됩니다.

보아스의 고백

보아스는 아무개로부터 롯의 기업 무를 책임을 넘겨받게 되었고 나오미가 가진 모든 것과 롯을 책임지게 됩니다(9-10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롯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보아스가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은 먼저 나오미가 가진 재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롯(사람)을 산다’는 것은 그녀를 아내로 맞이한다는 의미입니다. 고엘 제도에 있어 거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부동산과 동산을 모두 구매함으로써, 그녀가 살아 있는 동안에 부양하고 죽은 후에도 돌보아 줄 책임을 받아들였다. 보아스는 롯을 얻음으로써 그녀에게 자녀를 낳을 기회를 주어야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자녀들 중 첫 번째는 엘리멜렉의 후사가 될 것이며, 나머지는 그의 아들이 될 것이다(IVP 성경배경주석, 398).” 이처럼 보아스는 아무개와는 달리 하나님의 율법대로 기업 무를 자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성읍의 축복

성읍에서 존경받는 보아스와 현숙한 여인 롯의 혼인 서약에 성문에 있는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은 즐거이 증인이 되어 주고 그들을 축복하게 됩니다(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성읍 백성들은 롯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해달라’고 축복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두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라헬과 레아는 열 두 명의 아들들을 낳은 자들로서 롯에게도 대를 이을 많은 자손들이 생기기를 빌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라헬과 레아가 낳은 열 두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체가 된 것처럼 롯이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을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는 축복이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바램대로 롯은 이방 여인으로서 영광스럽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다섯 명의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마 1장, “다말, 라합, 롯, 우리야의 아내, 마리아”). 위의 다섯 명의 여인들 중에 라합과 롯은 이방 여자들이었지만 유다 지파 그것도 다윗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 백성들이 말하는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이름이었습니다(창 48:7,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는 히브리 문학의 동의 대구법으로서 즉,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할 때 쓰는 수사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성들은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해달라고 축복합니다(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거짓말로 인해

다말은 기업 무를 책임을 다하고자 시아버지인 유다와의 관계를 통해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세라와 베레스'입니다(창 38:29-30). 그 중 차자인 베레스가 훗날 보아스의 직계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룻 4:18,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그러므로 사람들은 베레스가 다말을 통해 끊어질 뻔했던 유다 집안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장차 룻과 보아스를 통해 그와 같은 조상이 되기를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축복대로 이 둘 사이에서 사대 만에 다윗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아스의 경건한 삶은 백성들에게 귀감이 되고 그의 이름의 뜻(보아스: “하나님 안에는 힘이 있다.”)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빛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사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모습과는 달리 율법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킨 보아스와 헤세드의 사랑을 지킨 룻의 삶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사 시대의 특징은 부도덕, 우상숭배, 타락, 불순종, 정욕, 영적 암흑이 특징이었다면 룻기의 특징은 충성, 순결, 헌신, 사랑, 순종, 영적 빛이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고엘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예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엘은 가까운 친족 중에 능력이 있고 구속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 구속의 값을 치루고, 상대의 모든 저주를 담당 함으로서 자유케 하는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모세오경의 제사 제도, 도피성, 그리고 고엘 제도와 같은 구약의 율법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오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죄인인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해결하실 구속주를 기대하고 소망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더이상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비록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 시대와 다른 점은 우리가 더이상 반복적인 제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히 10:10-14).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제사 없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구약 백성을 막론하고 모든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오늘도 그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죄를 해결 받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 2. 미국을 위한 기도:**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시안 혐오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땅에서 일어나는 인종 차별과 혐오 범죄가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중보합니다.
-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각 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드-베다니 1 구역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가나에서 사역하시는 양광균 선교사님과 가정의 건강 그리고 사역지를 위해서 중보합니다.